

영어 교재 분석 평가의 사례

김정민·김해동·박종헌·유재신·이길영·이충현·장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Kim, JungMin, Kim, HaeDong, Park, ChongHun, Ryu, JaeShin, Lee, Kilryoung, Lee, ChungHyun & Jang, SuHyun. (2007). A case study of ELT textbook analysi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3(4), 233-252.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ystematic way of evaluating competing ELT textbook series. Three stages of evaluation procedures were employed: A sample of two sets of English textbook series for young learners were first analysed by five trained textbook evaluators using a checklist. Second,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evaluative discussion was carried out. Third, two independent evaluators conducted impressionistic evaluation on the series. The procedure employed in this materials evaluation process can be adapted in choosing series of textbooks. Since not many studies have dealt the evaluation of textbook series by multiple evaluators, the method presented in this study can be referred to and applied by materials evaluators in other contexts.

[materials analysis/evaluation, 교재 분석/평가]

I. 머리말

영어교재가 매년 수없이 발간되고 있는 현실 상황 속에서 좋은 교재를 선별한다는 것은 일반 영어 교사들에게는 쉽지 않은 과제이다. 교재로서 교과서가 있다는 것과 더 나아가 좋은 교과서를 가진다는 것은 교사에게 크나큰 재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Bell & Gower, 1988; Brumfit, 1980; Cunningsworth, 1984; Edge & Wharton, 1998; Hutchinson & Torres, 1994; O'Neil, 1982; Rubdy, 2003; Sheldon, 1988), 여러 가능한 교과서 중에서 우수한 수업용 교과서를 잘 선정한다는 것은 실제 교실 수업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Chang, 2003).

교재의 선정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교재선정 이론에 근거한 의미 있는 연구 작업이라 판단하여, 본

* 공동저자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제작된 여러 유사한 교재 중에서 교재의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평가와 분석을 체계적인 단계에 따라 시도 해 보기로 한다.

우선, 영어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선정이 가능한데, 일차적으로 각종 출판사에서 출간된 많은 교과서들을 기초 조사하여, 선정 가능한 교과서들을 선별한 후, 선정된 교과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며, 이 결과를 기초로 하여 대상 교과과목을 엄두에 두고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Kim, 2004). 이에 근거하여 교재의 선정을 하는데, 조사 단계는 여러 교과서를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대체적인 인상을 근거로 교과서를 선정하는 것으로서, 대충 평가(flick test, Matthews, 1985)나 인상 평가(impressionistic overview, Cunningsworth, 1995)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여기서, 분석 단계의 주요 목적은 일차 선별된 여러 교과서를 내용과 형식에 따라 상대적 비교를 하는 것에 있다. 평가 단계는, 평가자가 교사와 학습자 및 기타 여타 변수를 고려하여 교과서가 적합하기를 판단하는 것이 주 작업이다. 평가는 교재 사용자에게 관심을 두고 교재 사용 결과와 잠재적 가치에 대하여 판단을 한다면, 분석은 교재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밝혀내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재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고자 2006 년에 출간된 두 종류의 교과서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된 결과의 제시 보다는 평가의 체계적 과정 제시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는 차후 교재 검토 평가자 들이 실제로 본 연구 과정에 근거하여 검토 작업을 응용하여 실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 교재 검토의 실제에 있어, 여러 평가자 들이 동시에 교재 검토를 어떻게 실시하였는가에 대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차후 동료 연구자들에게 본 연구는 참고가 되는 문헌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교재의 정의와 유형

일반적으로 영어 교재라 함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혹은 수반되는 교사용 지침서, 카세트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CD-ROM, 연습서, 교사가 준비하는 보조 자료, 유인물, 사전, 문법서, 신문, 잡지, 사진, 인터넷 자료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Kim, 2004). 이러한 물리적 정의 외에도 기능적으로 보면 Tomlinson(1998)은 교재는 어떠한 형태로든 학습자의 영어 학습 활동을 유발 혹은 촉진 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영어 교과서의 유형으로는 대상 학습자의 유형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Kim(2003)은 그 종류와 특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원어민용 영어교과서로 영국, 미국 등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국가의 영어책이다. 이들 교재는 주로 읽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듣기 활동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 말하기는 주로 아이디어 표현에 중심을 두고 있고, 쓰기의 경우, 과정 중심의 쓰기 활동 보다는 결과물에 대하여 보다 중점을 두는 과제로 다루고 있다. 네 언어기능의 균형상 취약점을 지니고 있으나 방대한 양의 언어자료를 제시한다는 측면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는 영어를 제 2 외국어로 배우는 교재로서 주로 미국으로 이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재이다. 이들 교재의 특징은 미국의 문화나 역사, 정치에 대한 소개가 많다는 점이 특징이다.

셋째로 국제용으로 출간된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교과서가 있다. 이는 외국인이 영어를 배움에 있어서 언어 기능에 대한 구성이나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 상당히 균형이 잡혀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동일한 문화와 언어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면이 있다.

넷째로는 한국 학생들을 위해 국내에서 제작된 교과서가 있다. 이들은 한국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잘 반영하며 한국인만의 독특한 언어 구조나, 발음, 어휘, 문화적 이해 상의 문제점 등에 보다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교재는 우리나라의 수업 시간에 그 교재 분량이 적합하며,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앞서 배운 것을 활용할 수 있고, 학습자의 수준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으며, 한국인 교사와 학습자에게 맞는 최적의 수업을 구상할 수 있다. 우수한 국내 교재는 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적인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제작된 영어교재만을 연구 대상으로 국한하였다. 이는 분석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교재의 선정에 있어서, 국내에 수입되는 국제적 용도로 제작된 책들(International English as foreign language textbook)은 대부분 시범 사용을 거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는 것 만으로도 평가의 기능을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교재 분석과 평가

영어교재 검토 및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평가 준거의 틀을 확립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분석표를 참고 하고 활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표가 사용되는 이유는 교재를 선정하거나 평가 할 때 기준을 제시해 주고, 기준에 있는 교재들을 비교하거나 평가하기 위해서이다.

영어 교재 평가분석과 관련된 문헌을 살펴보면 체계적인 교재 선정을 위한 분석표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Kim(2003)은 심층적인 문헌 분석을 통하여 교재 평가를 위한 80 여 개 이상의 분석표에 관한 문헌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

한 분석표들은 몇 가지의 글로 표현된 기준을 제시한 후에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 하거나, 각 기준에 대한 하위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교사용 분석표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되는 Tucker(1975)와 Williams(1983)의 정교한 질문서가 있지만, 이러한 분석표들은 평가기준이 문법 번역식 교과서 평가용으로 현재의 교재에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널리 사용 되지 않았다. 분석표들은 교사가 거쳐야 할 결정 과정을 반영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여러 단계로 구성 되어있다. 예를 들면, Breen 과 Candlin (1987)의 상호 점진적 지침서는 교재의 전반적인 실용도에 대한 첫 번째 단계와 특정 학생과 교실 상황을 염두에 둔 심층적인 분석으로 이루어진 두 번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Hutchinson(1987) 또한 교재 평가를 객관적인 분석과 주관적인 분석으로 이루어진 상호적인 단계로 보았다. McDonough 와 Shaw(1993)는 2 개 이상의 단원에서의 기능 제시, 과제의 등급과 연속성, 사용된 텍스트의 종류, 연습문제와 시험과의 관계 등을 외부에서부터 평가해서 심층적인 내부 평가로 이동하는 두 개의 상호보완적인 단계를 제시하였다. Sheldon(1988)의 경우에는 배치와 그래픽 등의 유용성과 외부적인 특징에서부터 학생의 요구, 학습 목적, 학생의 배경과 나이 및 문화, 학습자의 개념적 발달 정도, 학습에 대한 기대와 학습 선호와 같은 심리적 및 심리 언어학적인 측면까지 포함한 포괄적 기준을 가진 분석표를 제시하였다. 지금까지는 학습자 환경과 학습 원리를 시발점으로 하는 Cunningsworth(1984, 1995)의 분석표가 가장 총괄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Cunningsworth 의 분석 표에 있는 지침서와 기준은 유용한 사례가 되는 교과서 실례와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문법, 음운론, 담화능력과 관련된 교재들에서 발췌한 명확한 예시를 통해 설명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교 교재 선정 평가 시에 이용된 바 있고(Kim, 2002) 북한 교과서 분석에도 활용된 바 있는(Kim & Choi, 1999) Littlejohn (1998)의 분석표를 이용하기로 한다. 이 분석표의 특징은 현재 영어 교육에서 초점을 받고 있는 과제 중심의 교재 구성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재를 평가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Littlejohn 의 분석 표는 교재를 외국어를 가르치고 학습을 보조하는 교육 장치로 보고 평가표의 초점을 교재의 방법론적인 측면과 내용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Littlejohn(1998)의 분석표는 ‘출판’ 과 ‘구성’ 의 이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출판은 교재의 실제적인, 외향적인 양상을 지칭하며, 구성은 교재의 목표, 교재 내에서의 과업, 언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선택 되고 연결되는지, 교재 내용의 초점과 성질 등을 고려하는 단계이다. Littlejohn 의 분석표는 학습자에게 정확히 무엇을 하도록 요구 되며 Breen 과 Candlin(1987)이 말하는 ‘과정적 능력’ 을 바탕으로 한 학습자의 지식, 능력, 기술이 어떻게 연관되는 지에 초점을 둔다. 과정적 능력이란 각기 다른 영역의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 의미를 표현하고 해석하고

연역하는 능력과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등의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을 뜻한다.

Littlejohn(1998)의 분석표는 비교적 확인이 쉬운 측면에서부터 심층적인 측면으로 이어져 있어서 평가자들로 하여금 점차 추론적이며 주관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어 있다. 일 단계에서는 가장 객관적인 특징들이 무엇인지, 이 단계에서는 교사와 학습자들에게 요구되는 과제 분석, 삼 단계에서는 교재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원리와 철학에 대한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Littlejohn 은 일 단계에서 교재 전반에 대한 전반적이며 단편적인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교재의 10% ~ 15%인 중간 단원 2~3 개를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단계가 교재의 객관적인 본질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 단계에서는 교재의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면을 분석하는 좀 더 깊이 있는 단계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교재를 이용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지 연역해야 하기 때문에 교재를 과제중심으로 나누어야 하며 과제에 대한 정의 또한 확립되어야 한다. 일 단계에서의 교재의 외향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과 이 단계에서의 과제의 분석을 통해 마지막 삼 단계에서는 교재의 목표, 학습자와 교사에게 제안된 역할, 과제와 내용에 대한 선택과 순서에 대한 평가적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3. 교재 분석 단계

본 연구는 교재 평가의 단계에서 인쇄 후 단계에서의 교재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Roberts(1996)에 의하면 교재 평가 단계의 이상적인 모델은 크게 인쇄 전과 인쇄 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교재 디자이너들이 교재를 편집하는 예비 결정 단계나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발행을 구상하는 것은 첫 단계인 교재 디자인, 교재 초안 쓰기, 초기 실행을 포함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출판사가 원고나 계획안을 수락하거나 거부하는 비공식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초안 형태의 교재는 목표로 하는 학습자나 교사들에게 시범적으로 사용되고, 이에 나온 결과는 교재가 수정 보완이 필요한지, 부적합한지 판정을 받게 된다. 여기까지가 인쇄 전 단계이며, 인쇄 후 단계에서는 교재를 실제로 사용할 학습자들이 지필 평가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분석해 볼 교재가 어떤 것인지 평가자들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지필 평가와 실제 교실에서 사용할 거친 교재들은 학습자들과 교사들의 반응까지 포함한 모든 정보가 수집 된 총괄평가 단계에 이르게 된다. 마지막으로 결정의 최종단계인 제 3 단계에서는 특정 교재들에 대해 적합성 또는 부적합성을 판정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 평가된 교재들은 인쇄 후 실제 사용은 거치지 않은 단계까지를 포함하였다.

4. 영어 교과서 시리즈와 관련된 사례연구

검토 평가와 관련하여 다수의 평가자들이 참여한 사례 보고 연구는 영어교재론 분야에 있어서 비교적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영역에 속한다. Sheldon(1988)이 지적하듯이 검토 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TESOL Quarterly* 나 *ELT Journal* 과 같은 전문 학술지의 'Book Review'부분에서 제시되고 있다. Ellis(1997)는 이들 서평분야의 교재 평가에 대한 순기능적인 측면을 인정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서평들이 평가자의 주관이나 체계적이지 않은 검토결과자료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이들 영어교육관련 전문학술지를 살펴보면, 서평의 경우 특정한 유형의 교재를 한 두 명의 평가자가 평가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예외적인 경우로는 7인의 에스토니아 영어교사와 영국문화원의 전문가 들이 모여서 시리즈로 구성된 중등영어 교재를 분석한 것이 있다(Campbell 등, 1998). 이들은 *Cambridge English for Schools, English Jackpot, High Flyer, Hotline, Open Doors* 라는 5종의 시리즈로 된 영어교재를 논의와 검토를 통하여 *Open Doors* 가 에스토니아의 중등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교재임을 결론 내리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교재 검토가 다수에 의하여 일종의 프로젝트형 검토 평가가 진행될 수 있음을 보이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아쉬운 점은 다수가 공동으로 진행한 분석형 평가결과나 분석의 준거 틀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제시 반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며 분석적인 교재 검토결과 사례를 보여주고자 한다.

현 상황에서 보면, 미국이나 영국의 영어교육 전문학술지에서 다루고 있는 교재 검토 사례에 비하여 국내의 교재 검토는 거의 이론적 전문서적에 대한 전문가 단독의 서평에 그치고 있다. 국내 출판물의 경우도 교재 분석 사례에 대한 전문서적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최근에는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실행되고 있는 형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영어교재 분석 당하다*(2006)를 살펴보면 20명의 영어 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각자 영어 교재를 선별하여 검토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재 검토, 분석, 평가와 관련된 전문서적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내용상 교차검토가 가능하거나 정량화 할 수 있는 교재 검토 평가 틀을 사용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겠다. 즉, 다수가 참여하여 영어 교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큰 의의가 있으나, 가치 판단 부분에서 교재 상대 비교 분석을 배제한 것은 다소의 단점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다수의 참여자들이 체계적인 틀을 활용하여 교과서 분석과 검토 평가를 실시하고 교재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과정과 결과를 제시 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교과서 분석모형

본 연구는 초등학생 대상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교과서 두 권을 분석 평가 하였다. 분석에 참여한 이는 교수 1 인과 영어교재 제작 평가 훈련을 받은 TESOL 박사과정 2 인과 석사과정 2 인이 참여하였다. 분석을 바탕으로 평가를 실행하였고, 이러한 실행결과 총괄 평가 결과가 도출되었다. 전체적인 인상평가는 2 인의 영어교육 전공 교수들이 실행하였다.

분석의 경우 Littlejohn(1998)의 분석표를 활용하여 여러 평가자가 공동으로 대상 교과서를 분석 하였다. 분석 틀은 크게 3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또 각각의 세부 조항으로 나누어진 분석표는 본 연구에 있어서 교과서를 좀 더 체계적이며,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분석표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학습자가 무엇을 하도록 기대되는가?(What is the learner expected to do?)를 분석하게 되어 있다. 세부 사항으로는 학습자의 담화 역할과 담화 통제/학습자가 사용한 언어 규칙이나 양식, 사용된 언어의 메시지, 형식과 의미 사이의 초점/어떤 인지 작용이 요구 되는가?(장기 기억으로의 산출, 본문 구성, 사전 지식의 활용, 대상에 관련된 소리, 언어 실례의 비교, 의미적 내용 해독, 주어진 본문에서 학습자가 정보 추론하는 정도, 반복, 언어 규칙의 연역, 언어 규칙의 적용 등을 분석한다.

둘째로 분석대상 영역은, 누구와 함께 상호작용을 하는가?(With whom?)와 관련된 것이다. 세부 사항으로는 일부 학생들과 교사와의 상호 작용, 일부 학생들과 전체 학생들간의 상호 작용(예를 들어 모둠 집단 활동에 대한 학습자의 피드백) 정도, 학습자 개인(예로, 각각의 학습자가 쓰기 활동을 하는 것)의 활동 정도, 짝 혹은 소규모 모둠에서 학습자들이 서로 상호 작용하는 정도와 관련된 것이다.

셋째, 어떠한 구성 내용을 담고 있는가?(With what content?)를 분석한다. 이것의 세부 사항으로는 형식의 정도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구성 내용의 형식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정도, 그래픽(그림, 삽화, 사진, 도표 등) 제시 정도, 구두로 된 단어, 구, 절, 확장된 구어의 담화(예를 들면, 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제시 정도, 쓰여진 각각의 단어, 구, 절(예를 들면, 어휘 목록 리스트) 제시 정도, 서면으로 된 확장된 담화(예를 들면, ‘이야기’), 음향 혹은 음악의 제시 정도, 학습자들에 의해 산출 될 수 있는 구성 내용의 형식, 각각에 구어의 단어, 구, 절(예를 들면 문형에 대한 응답) 제시 정도, 확장되어 씌어진 담화(예를 들면, ‘이야기’ 작문) 제시 정도, 씌어진 단어, 구, 확장된 구어의 담화(예를 들면, 사건에 대한 구두 설명) 제시 정도, 구성

내용의 출처에 대한 파악(예를 들어 교과서와 같은 자료인가 아니면 교사 및 학습자들로부터의 구성 내용의 공급인가), 구성 내용의 유형(개인적인 의견, 사실, 허구, 개인적인 정보, 언어의 사용, 구조, 형식 혹은 의미에 대한 지식) 파악에 대한 것이다.

교과서 분석은 각각의 제시된 영역이 어느 정도 빈번하게 제시되고 있는가를 기록하는 것이다.

2. 교과서 분석 과정

교과서 분석은 전체 교과서에 대한 총괄 평가가 아니라 Cunningsworth(1995)와 Malay(1998)가 제안한 바대로 교재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대상 교재의 가운데에 위치한 두 과를 각각 나누어 2 차례에 걸쳐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분석에서 첫 번째 분석 교재인 H 영어 교과서는 초급 단계 1 권의 2 과, 3 과, 중급 단계 1 권의 2 과, 3 과, 2 권의 2 과, 3 과, 고급 단계 2 권의 2 과, 3 과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 분석 교재인 E 영어 교과서는 1 단계 C 권, 2 단계 C 권, 3 단계 C 권, 5 단계 C 권, 6 단계 C 권을 분석하였다.

3. 교과서 분석자내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총 5 인의 평가자가 공동으로 분리된 영역을 분석을 하였으므로 결과의 신뢰성을 위하여 평가자간 신뢰도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위의 분석표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분석표의 내용에 대하여 숙지하였으며, 실제로 본 분석에 앞서 샘플로 1 개과에 대하여 공동으로 분석을 실행하고 평가자간의 신뢰도를 검정하였다.

평가자간 상관관계를 피어슨 r 상관관계로 살펴본 결과 아래 상관계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최고 .938, 최저 .484 였으며 평균이 .680 로 나타났다.

표 1
분석 결과의 평가자간 상관계수

	평가자 1	평가자 2	평가자 3	평가자 4
평가자 2	.588			
평가자 3	.484	.578		
평가자 4	.532	.633	.938	
평가자 5	.605	.630	.876	.934

이러한 수치는 예전의 Kim(2002)의 연구에서 보고된 평가자간 상관관계의 평균값인 .731 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로서 본 연구에 참여한 분석자들의 분석

결과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결국 이들이 내린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 또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진다.

4. 교과서 평가표 활용

위의 분석적 평가와 달리 총체적 평가를 위해 평가도구는 Grant(1987), Sheldon(1988), Skierso(1991), McDonough 와 Shaw(1993), Cunningsworth (1995)의 교재 평가표에 근거를 두며 작성된 Peacock(1997)의 교재평가표를 적용하였다. Peacock 의 교재 평가표는 총 60 개 문항으로 Kim(2004)은 이들 항목에 대한 대학교수 38 명의 설문응답을 근거로 요인분석을 통하여 총 16 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추출된 항목을 중심으로 새로이 교재평가표를 작성하였고, 이러한 요인분석과정과 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Kim(2004)에 수록이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작성된 교재 평가표를 활용하여 내용적으로도 타당하며 국내 환경에서 적용이 되었던 평가기준으로 교재를 평가하였다. 이들 항목 중에는 교사 지침서와 관련된 항목이 1 개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 15 개의 항목을 교재평가에 활용하였다. 15 개의 각각의 항목은 7 점 척도로 평가 되었다. 15 개의 기준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Kim, 2004).

- (1) 교재는 편집(인쇄나 삽화의 수준 및 페이지의 구성)이 잘 되어 있으며, 최근에 출판된 것이었다.
- (2) 소개되는 문화적 내용은 수업에 적절하여 학습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였다.
- (3) 학습자가 수업 시간에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할극이나 활동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 (4)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다양하며 적절한 자료를 수록하여 학습자의 개인적(학습) 참여도를 높였다.
- (5) 학습자가 자신이 학습에 스스로 책임감을 갖게 하기 위한 안내 자료를 포함하고 있었다.
- (6) 교재는 현재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학습 이론과 방법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 (7) 강세의 유형이나 억양, 개별 음의 인식과 더불어 발화를 위한 발음 연습의 자료가 있었다.
- (8)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 기술을 균형 있게 제시하여 다양한 수업 활동을 소개하여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이 발달할 수 있게 했다.
- (9) 개별단원은 다양한 학습 활동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매 단원의 새로운 문법사항은 적절하며 체계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 (10) 학습자가 교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안내하는 부분이 있었다.

- (11) 학습자가 배운 바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예, 학습 성취도 평가 시험) 들을 포함하고, 학습자가 혼자서도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 (12) 교재는 학습자가 교실 밖에서도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인도하였다.
- (13) 교재에는 문법 사항, 언어 기능 항목에 대한 요약이나 색인 및 새로 나온 어휘, 내용 소재 등에 대한 목록 표를 담고 있었다.
- (14) CD 는 음질이 좋고, 원어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정상적인 대화 속도로 녹음 되어 있었다.
- (15) 교재는 구입이 용이하고 비싸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15 개 평가 고려 항목 중에서 CD 의 부재와 가격이 동일한 시리즈 물을 평가하였기에 14 번과 15 번 항목은 적용이 불가능 하였다. 실제로 분석 참가자 5 인은 2 종의 대상 교과서에 대한 각각의 분석을 마친 후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5 문항으로 구성된 평가서와 함께 결과에 대한 토론을 실시함으로써 질적인 평가를 시도 하였다. 이를 통하여 교과서의 장점 및 단점 또한 파악하였다. 이러한 질적인 평가는 참가자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공동 작업을 한 이유는 Chambers(1997)가 지적한 바대로 선정과정에서 제외된 평가자는 차후에 선택된 교과서에 대해서 이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평가표 바탕으로 논의하는 것이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다.

5. 교과서 인상 평가

교과서 인상평가는 H대 영어 교육학과 소속 교수 2 인의 참여로 이루어 졌다. 이들 사범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들의 평가 참여로 분석의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되는 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독립적인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평가 결과는 분석결과와 함께 제시되면서 교과서 선정이라는 의사 결정 판단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연구 결과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 되었다.

IV. 연구 결과

1. 분석 결과와 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는 과제 중심과 의사소통중심의 활동 교재 구성 분석에 적합한 Littlejohn(1998)의 분석표를 활용하여 교재를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 2 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2
두 영어교과서 분석 결과

		과제의 발생 빈도												
		H textbook series					E textbook series							
		초급 1		중급 1		중급 2		고급 2		1C	2C	3C	5C	6C
		2	3	2	3	2	3	2	3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학습자가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는가?	차레 바꾸기	주도적								20	20			
		반응적 필요 없음	3	3	4	4	4	4	5	7	20		20	20
		언어 체계 의미	1		2	2	2	2	3	5			14	
		의미/체제 관계	1	1	2	2	2	2	1	2			6	4
				2					1					
정신적인 면		장기기억에 의존함	1										16	
		텍스트 구축	2	3	3	3	2	2	4	5			17	14
		선행지식을 끌어옴	1	1					1	1			16	
		소리와 사물의 연결 비교	1	1										14
		의미 풀이			1	1							2	2
		정보 선택			2	2	1	1					16	2
		확장하며 반복	1	1	1	1			3	2			2	
		언어 규칙에 대한 연역		1	1	1					20		3	16
		언어 규칙 적용			1	1	3	3	2	3	20	20	10	20
누구와 함께		학습자가 전 학습자			1	1			2	1				20
		학습자 개인이 동시에	3	3	4	4	5	5	2	4			10	
		작활동/그룹활동의 학습자			2	2			1	1				
내용-형식														
학습자에 대한		그래프	3	1	6	6	3	3	2	1	20	20	15	20
Input		구두로된 단어/구		2	2	2			1	2	16	20	15	
		구두 확장/ 담화					2	2	1			20		
		문자 단어/구	3	3	4	4	4	4	5	4				22
		문자 확장												
		담화(문단)					1	1	2	2				
		소리/음악	2	1	2	2	2	2			4	2		
기대되는 Output		구두로된 단어/구	2	1	1	1			2		20	20	20	16
		구두 확장/ 담화					1	1	1	3		10		
		문자 단어/구	3	3	4	4	4	4	4	4				4
		문자 확장												
		담화(문단)					1	1						
출처		교재	2	2	6	6	5	5	5	7	20	20	20	20
		교사	1				1		1					
		학습자(들)	3	3										
본성		개인 의견												
		사실	3	3			2	2	4	5	20	20	20	4

허구	2	2	6	6	3	3	1	2	20	18			
개인 정보													
초 언어적 지식					1	1				4			
개별 단원의 총 과제 수	40	40	55	55	50	48	55	61	178	240	176	162	210

총괄비교평가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교재는 총6과 중에서 초급 1, 중급 1, 중급 2, 고급 2의 책을 골라서 각각 가운데 단계별 각 권에서 2, 3과를 때에서 분석을 했으며 두 번 교재는 총 20과로 1C, 2C, 3C, 5C, 6C 각 권의 전 단원을 다 분석한 것이며, 분석 결과표에 표시된 숫자들은 분석 결과 각 항목에 대해 나타난 횟수를 적은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첫 번째 교재의 과제의 부하 정도는 두 번째 교재보다는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교재인 H 교재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보면, 교재의 편집(인쇄나 삽화의 수준 및 페이지의 구성)이 평범한 편이었으면 출판은 최근에 된 것이다. 그러나 문화적 내용에 대한 소개는 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학습자가 수업시간에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할극이나 활동에 관한 자료는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자료는 다수 수록하고 있는 편이며, 학습자 자신이 학습에 스스로 책임감을 갖게끔 안내하는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서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H 교재는 현재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쓰이는 학습 이론과 방법론에 기초한 것 이라기 보기에 다소 미흡했다. 강세의 유형이나 억양, 개별 음의 인식과 더불어 발화를 위한 발음연습의 자료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 기술을 균형 있게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다양한 수업활동을 소개하여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이 발달할 수 있게 했다고 보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개별단원은 다양한 학습 활동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매 단원의 새로운 문법사항은 적절하며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진 않은 편이었다. 학습자가 교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안내하는 부분은 다소 포함하고 있었으나 충분하지는 않았다. 학습 성취도 평가 시험과 같이 학습자가 배운 바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학습자 혼자서도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학습자가 교재에서 배운 내용을 교실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재에는 문법 사항, 언어 기능 항목에 대한 요약이나 색인 및 새로 나온 어휘, 내용 소개 등에 대한 목록 표를 담고 있다고 보기에 미흡했다. CD 는 음질이 좋고, 원어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정상적인 대화 속도로 녹음되어 있었다. 교재는 구입이 용이하고 비싸지 않았다는 항목은 확인이 불가능했다.

분석 자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총평이 가능하다: 과제활동 측면에서 H 교과서의 6 시리즈에서는 수준별 차이가 별로 두드러지지 않으며, 교재의 구성상 최근의 교수기법을 반영하기 보다는 받아쓰기 등에 중점을 두고 문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형태의 교재이다. 언어의 4 기능을 모두

다루려 하였으나 연계성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CD 삽화의 수준이 높아 성인학습자에게 보다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화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교재로 판단된다.

분석표에 근거한 H 교재의 장점으로는 교재 구성이 반복적으로 되어 있어, 초보 교사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교재이고, 학부모들이 학습자의 쓰기 산출물을 교과서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교재나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연어를 활용한 구문 소개는 본 교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삽화가 화려하고 이야기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용이할 듯하다. 반면에 삽화를 지나치게 치중하여 오히려 문자에 집중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교재의 초점과 내용의 연관성이 다소 부족한 듯하다. 학습자의 장기적인 흥미를 유발을 유도하고 유지하기에는 활동이 다양하지 못하며 교사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지 않고 workbook 의 인상을 주는 교재이다. 교수기법상 청화 학습법에 치중한 교재 구성이지만, 그 연습의 유형 또한 제한적이다. 교사지침서가 없고 발음 연습자료가 부족한 면 등도 다소 미흡한 점이며, 예비활동이나 다문화적인 내용 소개가 부족하다.

분석표에 근거하여 E 교재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보면, 교재는 편집-인쇄나 삽화의 수준 및 페이지의 구성-이 잘 된 편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출판은 최근에 된 것이었다. 문화적 내용은 거의 전무했지만, 학습자가 수업시간에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할극이나 활동에 관한 자료를 다소 포함하고 있었고, 학습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약간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었다. 학습자 자신이 학습에 스스로 책임감을 갖게 하는 내용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었다. 교재는 현재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학습 이론과 방법론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강세의 유형이나 억양, 개별 음의 인식과 더불어 발화를 위한 발음연습의 자료가 많이 부족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 기술을 균형 있게 제시하지 못했으며 문법에 지나치게 치중했다. 개별단원은 다양한 학습 활동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지 못했고, 매 단원의 새로운 문법사항은 지나치게 많은 양이 제시되었다. 학습자가 교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안내하는 부분이 있었고, 배운 바를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학습 성취도 평가 시험) 등이 포함 되어서, 학습자 혼자서도 학습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교재는 학습자가 교실 밖에서도 영어를 사용할 수 있게 인도 하였다고 볼 근거가 별로 없었다. E 교재에는 문법 사항, 언어 기능 항목에 대한 요약이나 색인 및 새로 나온 어휘, 내용 소재 등에 대한 목록 표를 담고 있었다. CD 는 음질이 좋고, 원어민이 다양한 목소리와 정상적인 대화 속도로 녹음되어 있었다.

E 교재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12, 13 단계는 말하기 위주로 4,5,6 권은 문법위주로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은 교육적인 욕구- 초등학교

학습자에게는 말하기 중심 중급이상에게는 중학교 문법 준비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지나치게 난해한 문법이 문제로 대두 되었다. 또한, 어휘수준과 숫자의 측면에서 보아 4 권부터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다양한 칼라를 강조하다 보니 복잡하고 산만해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예전의 사교육 현장에서 다루고 있는 교재 스타일(짧은 대화문이 나오고, 이를 문형연습형태로 연습)을 활용하고 있다. 주제 상으로는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주제를 적절하게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 교과서 시리즈의 장점을 보면 중급단계에서는 역할극을 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었고, 초, 중급단계의 챗트와 노래는 흥미를 유발하는 자료이며, 인터넷과의 연계는 학습자에게 흥미를 줄 수 있는 요소로 여겨진다. 수학 문제의 경우 흥미로운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연습서의 활용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프로그램 다양화에 도움이 될 듯 하며, 번역, 해설은 교재의 자습용 활용 부분은 장점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삽화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고, 인물이 너무 강조되고 다양성이 없는 듯하며 교재가 표방하고 있는 문화적 내용이 결여되어 있으며, 수학기초의 수준이 학습자의 단계와는 동떨어진 것들이 있고, 하위단계에만 파닉스 활동이 있고, 고급 수준의 파닉스 연습활동은 결여되어 있다.

이상의 구체적인 분석결과에서와 다음의 인상평가에서 제시된 결과에는 매우 유사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분석표를 활용한 구체적인 분석결과에서는 부분적인 장단점이 보다 상세하게 파악되고 있다.

2. 인상평가 결과 및 논의

H 및 E 교과서 시리즈에 대한 영어교육 전문 교수들이 내린 전체적인 인상 평가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H 교재는 첫째, 교육적 측면에서 읽기, 쓰기, 듣기 및 말하기의 영어의 네 가지 기능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연계성이 떨어지고, 과제 중심, 내용 중심, 상호작용 중심 등과 같이 최근의 교수·학습 방법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문법 학습 및 암기를 강조하는 전통적 교수·학습 위주의 교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수 설계적인 면에서 전체 시리즈는 수준별 난이도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면, 각 단원 에서 제시된 문법이 무엇을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지가 불명확하다. 또한 각 권의 처음에 교수요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다, 즉, 과거분사, 현재 분사, 동명사 등이 기준 없이 각 권에 나오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위단계의 교과서의 문장 길이가 상위단계의 문장 보다 길다. 둘째, 디자인 측면에서는 동화책 혹은 그림책 느낌의 삽화는 생동감이 있다. 그러나 인물 묘사가 아동의 수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으며 전체 색감이 아동용 교재로써는 전반적으로 너무 어두운 느낌이 든다.

마지막으로, 보조 교재라고 할 수 있는 CD-ROM 타이틀도 교재를 중심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대로 교육적 측면에서 교재와 비슷한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 CD-ROM 타이틀의 전체 구성은 양호한 편이며 음성인식 기능도 제공하여 교재보다는 매체 특성을 나름대로 잘 적용하여 제작되어 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분석적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음은 영어교육 전문 교수의 계속되는 인상 평가이다:

“E 교재시리즈는 첫째, 교육적 측면에서 우리나라 초등영어 교육과정을 잘 반영하여 초기 단계에서는 듣기 및 말하기의 음성언어 그리고 중급 이상 단계에서는 문법과 문자언어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시리즈 각 권의 주제와 내용도 전형적이기는 하지만 주변 및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루고 있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여러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교재에서 자신들의 특징으로 언급한 문화적인 내용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이 교재 시리즈도 역시 4 권 이후에서는 수준별 난이도 조절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과제 중심, 내용 중심, 상호작용 중심 등과 같이 최근의 교수·학습 방법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청화 교수법과 문법 중심의 전통적 교수·학습 위주의 교재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디자인 측면으로 볼 때 인물 묘사와 삽화는 적절하나 입체감이 부족하고 단순하여 현재 학습자의 흥미 및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따라서 구성 자체가 평면적이고 좀 산만한 느낌이 든다. 보다 생생하고 입체적인 삽화와 CD 타이틀을 포함하면 좋을 것 같다.

결국 두 평가자의 결과는 유사하게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인상평가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H 의 경우 책의 구성에 있어서는 비교적 평이하게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본문 스토리가 나오고 그 다음 단어, 그리고 연습문제, 연이어 ‘읽기와 쓰기’가 나오고 있는데 단어와 연습문제 간에 있어 상관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읽기와 쓰기’에 있어서도 I 과 II 사이의 난이도가 다소 논리성이 결여되어 있음이 보여 진다.

또한 책의 디자인과 색상에 있어서 고급화를 꾀하는 등 독자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오히려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색감이 어두우며 그러다 보니 본문의 글자에 이중으로 하얀 배경을 깔아서 돋보이게 하였는데 더욱 어지러운 감이 있다. 예를 들어 본문 글자가 어두운 색 위 하얀색 부분 배경에 있어 어지럽게 보이는 문제가 있으며, 또 어두운 색깔의 건물그림과 겹치는 등 가독의 명확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단어를 학습할 때 가능한 한 그 단어의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코너는 나름대로 신선한 시도로 보여 지고 있다.

E 시리즈는 위 H 시리즈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책이다. 전체적인 인상으로 일단 밝은 분위기가 학생들에게 다가갈 것으로 보이며 캐릭터의 모습도 훨씬 친근하게 느껴진다. 위 H 시리즈 교과서가 일반적인 외국의 소재를 한 것으로 느껴지는 반면 E 시리즈 교과서는 한국인의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소재를 한 것이 강점으로 보여 진다.

책의 구성에 있어서는 간단한 본문이 나오고 이어지는 초점 부분도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요점을 분명히 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명하게 나와 있는 교재만큼 보다 자세한 사항을 위해 학생들은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보여 진다. 뿐만 아니라 3-C 의 경우, 매 과마다 나오는 ‘도시 쥐와 시골 쥐’의 이야기는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돌출성향이 있어 다소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갖게 된다. 간명한 본문과 간결한 요점정리에 갑작스런 이야기의 서술은 부담스럽게 느끼게 되는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H 시리즈 교과서의 책 구성을 보면, 색감이 부담스러운 느낌이어서 아동들에게 학습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며, E 시리즈 교과서의 경우 간결한 구도와 색감은 밝아 좋으나 교사의 지도력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 것과, 또 일상생활의 다양한 내용은 바람직하나 문화나 기타 풍성한 학습거리가 적은 것이 단점으로 보인다.

결국 인상평가의 경우 구체적이거나 특징적인 면에 대하여 보다 관심을 보이며 이에 대한 평가의 예를 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나는 인상평가에 근거한 평가결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구체적으로 인상평가는 두 교과서 시리즈의 비교우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교재 선정의 유용성을 높이고 있다. 다음으로, 인상평가의 경우 주어진 교재 평가표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영역을 폭 넓게 다루고 있다. 결국, 분석에 의한 평가결과도 최종의 선택적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총괄적 인상평가, 특히 전문가에 의하여 실행되는 인상평가는 평가방법의 다양성 확보와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는 바람직한 평가행위로 간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러 각도에서 측정하는 방법(methodological triangulation)은 영어교재의 평가에 있어서 타당성 있으며 권장하여야 하는 방법임을 본 연구는 사례 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 분석평가와 인상평가

H 교재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인상 평가에서는 과제 중심, 내용 중심, 상호 작용 중심 등과 같은 최근 언어 교수법 및 학습법을 잘 반영하지 못한 점과 난이도 조절의 문제점, 교사의 역할이 축소되고 학습자들의 개별 학습에 더 적합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네 가지 언어 기술은 연계성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각 단원의 문법 또한 체계

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삽화에 대해서는 아동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 하였으나, 인상평가에서는 삽화의 색감이 전체적으로 어둡다는 점과 CD-ROM의 음성 인식기능이 이 교재에 주는 장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였다.

E 교재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인상 평가에서는 앞의 H 교재에 비해 역할극이나 활동에 대한 자료가 다소 포함되었다는 점, H 교재와 달리 교사 지도력에 많이 의존해야 하는 점, 문화적 내용이 결여된 점, 보편적 학습 이론과 방법론 보다는 지나치게 난해한 문법이 대두된 점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인상평가에서는 삽화뿐만 아니라 책의 디자인과 색상, 인물 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 하였고, 캐릭터들의 친근한 모습과 다양한 소재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V. 결론

본 연구는 영어교재 검토 평가의 사례를 보고하여 검토 평가의 방식과 준거의 틀에 대하여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영어교재와 관련된 문헌을 살펴본 결과 다수가 참여하는 교재개발 프로젝트는 사례로 제시되어 있으나, 검토평가의 경우 다수가 참여 하기보다는 단독이나 2 인 정도가 공동으로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이유로, 다수가 참여하여 시리즈로 구성된 영어교과서를 다각도로 분석 평가 결과를 제시한 본 연구는 영어교재평가 분야에 대하여 하나의 적용 가능한 사례연구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행한 평가단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우선 영어 교재는 초등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고자 하는 교과서로서 2 종의 시리즈 물을 분석 평가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영어 교재 분석을 위해 최근에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과제 중심과 의사소통중심의 활동 교재 구성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Littlejohn(1998)의 분석표를 활용하였다. 평가의 경우 일반 영어 교재용 평가에 활용된 Kim(2004)의 것을 활용하여 개별 항목에 대한 평가를 내렸으며, 총괄 판단은 McDonough 와 Shaw(2003)가 제시한 바대로,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방안 등이 적절하게 교재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비추어 평가자의 토의와 논의를 통하여 실행하였다.

결론적으로 시리즈로 제작된 영어 교재를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1) 분석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표의 활용이 필요하며, 2) 다수의 훈련 받은 교재 평가자들이 분석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3) 다양한 방법의 평가 기법-분석틀 활용, 토의, 전문가의 인상평가-을 도입하는 것이 권장되는 기법임을 본 연구에서는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교재 검토 평가과정은 현장의 교재 개발자나 교재 평가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준거로 응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선정된 교과서 시리즈가 과연 대상 학습자의 영어 발달에 이바지하고 교사의 교재활용 만족감을 주는지는 후속 연구과제가 된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IGSE 영어교재연구회 (2006). *영어교재 분석 당하다*. 서울: EMD Media.
- Bell, J. & Gower, R. (1998). Writing course materials for the world: A great compromise. In B. Tomlinson (Ed.), *Materials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pp. 116-12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reen, M. P., & Candlin, C. N. (1987). Which materials?: A consumers and designers guide. In L. E. Sheldon (Ed.), *ELT textbooks and materials: Problems in evaluation and development* (pp. 13-28). London: Modern English Publications/The British Council.
- Brumfit, C. J. (1980). Seven last slogans. *Modern Language Teacher*, 7(1), 30-31.
- Campbell, C., Läänemets, U., Lillepea, M., Loog, T., Kammiste, T., Kärtner, P., Mägi, O., & Truus, K. (1988). Survey review: ETL coursebooks for secondary schools. *ELT Journal*, 52, 337-352.
- Chambers, F. (1997). Seeking consensus in coursebook evaluation. *ELT Journal*, 51, 29-35.
- Chang, B. M. (2003). English textbook analysis for developing the 8th national curriculum: Focused on discourse study using discourse completion task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9(1), 1-21.
- Cunningsworth, A. (1984). *Evaluating and selecting EFL teaching materials*. London: Heinemann.
- Cunningsworth, A. (1995). *Choosing your coursebook*. London: Heinemann.
- Edge, J. & Wharton, S. (1988). Autonomy and development: Living in the materials world. In B. Tomlinson (Ed.), *Materials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pp. 295-31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llis, R. (1997). The empirical evaluation of language teaching materials. *ELT Journal*, 51, 36-42.
- Grant, N. (1987). *Making the most of your textbook*. Essex: Longman.
- Hutchinson, T. (1987). What's underneath?: An interactive view of materials evaluation. In L. E. Sheldon (Ed.), *ELT textbooks and materials: Problems in evaluation and development* (ELT Documents 126) (pp. 37-44). London: Modern English Publications/The British Council.
- Hutchinson, T., & Torres, E. (1994). The textbook as agent of change. *ELT Journal*, 48(4), 315-328.

- Kim, Eun-Ju., & Choi, Yeon-Hee. (1999). An analysis of English textbooks and English teaching methods in South and North Korea. *English Teaching*, 54(4), 177-198.
- Kim, Hae-Dong. (2002). Procedures for the selection of a textbook: A university general English course. *English Teaching*, 57(1), 239-266.
- Kim, Haedong. (2003, December). University level in-house *ELT textbooks in Korea: Past, present and future*. Paper presented at the 2003 conference of the Applied Linguistics Association of Korea, Seoul, Korea.
- Kim, Haedong. (2004). Learners' opinions on criteria for ELT material evaluation. *English Teaching*, 59(3), 3-28.
- Kim, Nahkbohk. (2004). A collocational analysis of Korean high school textbooks and suggestions for collocation instructio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0(3), 1-26.
- Littlejohn, A. (1998). The analysis of language teaching materials: Inside the Trojan horse. In B. Tomlinson (Ed.), *Materials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pp. 190-21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lay, A. (1998). Squaring the circle—reconciling materials as constraint with materials as empowerment. In B. Tomlinson (Ed.), *Materials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pp. 279-29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tthews, A. (1985). Choosing the best available textbook. In A. Matthews, M. Spratt, & L. Dangerfield (Eds.), *At the chalkface: Practical techniques in language teaching* (pp. 202-206). London: Edward Arnold.
- McDonough, J., & Shaw, C. (1993). *Materials and methods in ELT: A teacher's guide*. Oxford: Blackwell.
- McDonough, J., & Shaw, C. (2003). *Materials and methods in ELT: A teacher's guide* (2nd ed.). Oxford: Blackwell.
- O'Neill, R. (1982). Why use textbooks? *ELT Journal*, 36, 104-111.
- Peacock, M. (1997). Choosing the right book for your class. *Essex Graduate Student Papers in Language and Linguistics*, 1, 61-69.
- Roberts, J. T. (1996). Demystifying materials evaluation. *System*, 24, 375-389.
- Rubdy, R. (2003). Selection of materials. In B. Tomlinson (Ed.), *Developing materials for language teaching* (pp. 37-57). London: Continuum.
- Sheldon, L. E. (1988). Evaluating ELT textbooks and materials. *ELT Journal*, 42, 237-246.
- Skierso, A. (1991). Textbook selection and evaluation.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2nd ed.) (pp. 432-453). Boston, MA: Heinle & Heinle Publishers.
- Tomlinson, B. (1998). Introduction. In B. Tomlinson (Ed.), *Materials development in language teaching* (pp. 1-24).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cker, C. A. (1975). Evaluating beginning coursebooks. *English Teaching Forum*, 13, 355-361.
- Van Els, T., Bongaerts, T., Extra, G., van Os, C., & Janssen-van Dieten, A-M. (1984). *Applied linguistics and the learning and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London: Edward Arnold.
- Williams, D. (1983). Developing criteria for textbook evaluation. *ELT Journal*, 37, 251-255.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Primary

김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TESOL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Tel: (011) 9156-9336
Email: wendy0824@hanmail.net

김해동
한국외국어대학교교육대학원 영어교육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Tel: (02) 2173-3017
Email: khd@hufs.ac.kr

박종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TESOL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Tel: (02) 2173-3017
Email: neatenglish@gmail.com

유재신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TESOL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Tel: (011) 9196-4904
Email: miffyyu@hotmail.com

이길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 영어교육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Tel: (02) 2173-3048
Email: klee@hufs.ac.kr

이충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 영어교육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Tel: (02) 2173-3044
Email: chlee04@hufs.ac.kr

장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TESOL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Tel: (010) 7191-8340
Email: newsue30@yahoo.co.kr

Received in Oct. 2007

Reviewed in Nov. 2007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 2007